



부안경찰서, 해나무가족호텔 업무협약 추진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휴)는 부안경찰서 2층에서 전국 경찰관서 직원(행정관 및 주무관 포함)의 복지증진과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 협약식은 직원들의 건강한 휴식 보장과 교대근무로 인해 여가활동이 부족한 경찰관들의 여가선용 등을 지원해 내부민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항 해나무 가족호텔은 경찰청 소속 직원에게 할인된 가격에 객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영휴 서장은 "해나무 가족호텔과의 협약을 통해 부안을 찾는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부설초, 3~6년 학생 수상안전교육 실시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최근 해양수련원에서 3~6학년 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생존 수영 능력과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이론 교육부터 실습, 구조 동작 배우기까지 실습형 체험교육으로 진행했다.

김신철 교장은 "이번 수상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구조 지식과 생존 기술 등을 익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생함과 밀접한 체험형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명인치과의원, 남원 죽향동어르신 틀니 제작지원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정숙)는 관내 명인치과의원(원장 정학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집종적인 치과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과 치료가 필요한 독거어르신을 연계했다.

이번 지원은 만성 신장질환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독거어르신이 치아가 전혀 없어 식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인치과가 치과 검진과 전체 틀니 제작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이 사례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건강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였으며,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낙상 예방 미끄럼 방지 매트 지원

남원시 덕과면(면장 박종만)에서는 낙상 예방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고령으로 인해 균형 감각과 근력이 약화된 어르신들을 발굴, 가정 내 욕실 등에서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였다.

한 어르신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적이 있어 늘 불안했는데, 이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 주어 안심이다"라며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IT기술 활용 현장 중심 업무 여건 조성

남원시, 모바일 행복 이음 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는 IT기술을 활용에 현장 중심의 업무 여건 조성을 마련하고, 편리하게 복지상담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행복이음'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는 읍면동 직원들의 모바일 행복이음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를 초빙해 사례관리, 단말기 활용법 등을 교육했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공무원이 복지상담 현장에서 휴대용 태블릿 기기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복지대상자 조회 △상담 내용 작성 △서비스 신청 등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행정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활용으로 거동불편 시민들은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복지상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복지서비스 대상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김현옥 주민복지과장은 "모바일 행복이음을 통해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보다 신속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상서·행안면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운영

부안군은 17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서면과 행안면에서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의료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고령자와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 주민들에게는 양방 진료뿐 아니라 치과·안과 검진, 수액 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됐다.

이번 왕진버스에는 대지안병원, 원광대 치과대학병원, 더스토리 등 3개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 맞춤형 종합검진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부안군은 지역협력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북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취업·전시 행사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17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가족부지원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미니 취업박람회와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홍보마케터 양성과정'과 '반려동물 소품&푸드 제조과정'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수료생들의 실질적인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과정은 각각 140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으며, 현장 활용도가 높은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디지털홍보마케터 양성과정'은 온라인 마케팅 전략, SNS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실무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 이날 행사에는 액키부기주식회사, 애드셀, 유니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수료생들의 높은 실무 역량과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양인스프링가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있다. 수료생 전원은 공동체 창업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직업교육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감을 얻고, 경력 개발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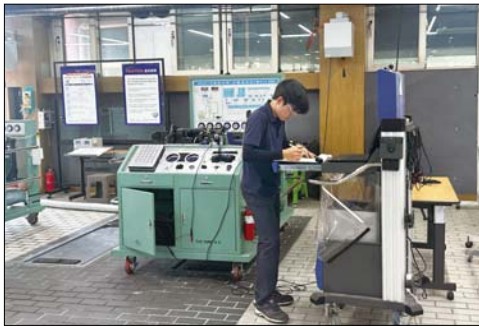
비전대-전주공고, 일학습병행 P-TECH 과정 우수사례 성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와 전주공업고등학교가 협력 운영 중인 일학습병행 P-TECH 과정이 기술인재 양성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전주공고 출신 김대성 학생이 2025년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상하이) 자동차정비 직종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되며, 고교-전문대 연계형 직업교육 모델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대성 학생은 전주공고 재학 중 자동차정비 도제과정(12)을 수료하고, 현재 전주비전대학교에서 P-TECH 자동차정비 과정(13)에 참여 중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학습병행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아왔으며, 산업 현장의 경험과 대학의 전문기술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에서 실습 기반의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조민준 학생은 2024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자동차정비 직종 1위를 수상한 데 이어, 이번 평가전에서 2위로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됐다.



두 학생 모두 도제학교와 P-TECH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거쳐며 산업체 재직과 전문대 학위 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콘텐츠 제작·실무 역량 강화 워크숍 성료

전주대학교 대외협력홍보실은 지난 16~17일 이틀간 소노벨 변산에서 재학생 대상 콘텐츠 제작 및 실무 역량 강화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지원으로 사회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주인의식을 갖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애자일(Agile) 조직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급변하는 홍보 트렌드 속에서 재학생들이 다양한 시각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홍보 전략을 직접 세우고 실행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워크숍은 △소품 콘텐츠 전략 및 데이터 분석법 △뉴스레터 제작 및 콘텐츠 전략 △타임랩 소품 콘텐츠 제작 및 발표회 등으로 구성,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한철수 씨, 정성 담은 벌꿀 50kg기탁

무주군에서 양봉업을 하는 한철수 씨(무주군양봉협회 총무)가 17일 무주군에 벌꿀 50kg(500g 100병, 13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벌꿀은 한 씨가 직접 채밀한 것으로 수확자 편의를 고려해 500g 단위로 개별 포장해 더욱 훈훈함을 전했다. 기탁된 벌꿀은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철수 씨는 "나와 내 가족들이 먹는 꿀이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내렸더라"며 "다행히 올해 수확량도 괜찮고 여유가 생겨 평소보다 조금 더 나눌 수 있어 마음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더위와 장마가 뒤엎겨 심신이 지칠 땐 데 시원한 꿀물 한 잔이 떨어진 기운을 끌어올려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 금암동 새마을부녀회, 도심 곳곳 여름꽃 심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새마을부녀회는 주민센터 직원과 새마을부녀회(회장 임지순) 회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금암동 임시청사 및 도심 곳곳에 메리골드, 안젤리카, 델라포리움 등 다양한 여름꽃 500여 본을 식재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관삼도로, 매봉로 일대와 주민센터 및 행정편의실 화단에 집중 식재하여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계절 변화의 체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편 이날 식재 행사에 참여한 새마을부녀회는 신년맞이 떡국 봉사, 각종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남원 도봉동,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 관람

남원시 도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통장협의회(회장 이거구),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규) 50여명과 읍면동데이 캠퍼스를 운영으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Fiorium)'을 관람하였다.

읍면동데이 캠퍼스는 읍면동별 주요기관단체 구성원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신청을 하면 시설현황을 공유하고 참여하여 무료입장하는 시스템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여성단체협, 35사단 신병수료식 차 봉사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황정자)가 지난 16일 35사단 신병수료식에 참석하는 부모, 친지들에게 따뜻한 차와 시원한 음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훈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팡스럽게 훈련을 잘 마친 256명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모, 친지들 800여 명에게 차 봉사를 통해 임실군의 훈훈한 정감을 느끼는 자리가 됐다.

또한 여건이 어려워 부모님이나 친지가 오지 못하는 나홀로 병사들에게 부모가 오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 주고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축하와 응원을 전하는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떠나는 신병들에게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왔다.

/임실=전홍영 기자